금융

Sector Issue Brief 2026. 02. 19

Check Point

- 금융업종 업사이클과 자본우려 해소
- PBR 뿐 아니라 PER 도 봐야할 시점
- 회사별 절대/상대 PER 비교분석

이제는 금융주도 PER을 보자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금융업종 업사이클: 어닝파워(PER)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국면

▶ 통상적으로 금융주는 ROE-PBR 밸류에이션을 활용. 금융회사 순자산가치의 가변적 속성으로 인해 자본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기업가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 하지만 현재와 같이 금융업종 전반이 업사이클에 진입한 국면에서는 자본훼손 우려가 낮아지면서 PBR 못지않게 PER 또한 중요한 투자판단 지표가 될 수 있음. 업황개선 기대감을 반영해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주가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향후 업종별/회사별 어닝파워가 밸류에이션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 또한 주주환원율 수준이 PER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향후 주주환원 확대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의 투자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것

▶ 은행업종의 경우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경기회복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신용위험 또한 감소한 상태. 보험사들 역시 시장금리 반등과 함께 부채할인율 산출기준 완화, 기본자본비율 도입 등 자본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 증권업종의 경우 증시호조와 머니무브를 바탕으로 완연한 업사이클 국면으로 진입. 따라서 금융업종 전반의 자본안정성이 제고된 상태에서 회사별 PER 비교를 통해 상대적 고평가/저평가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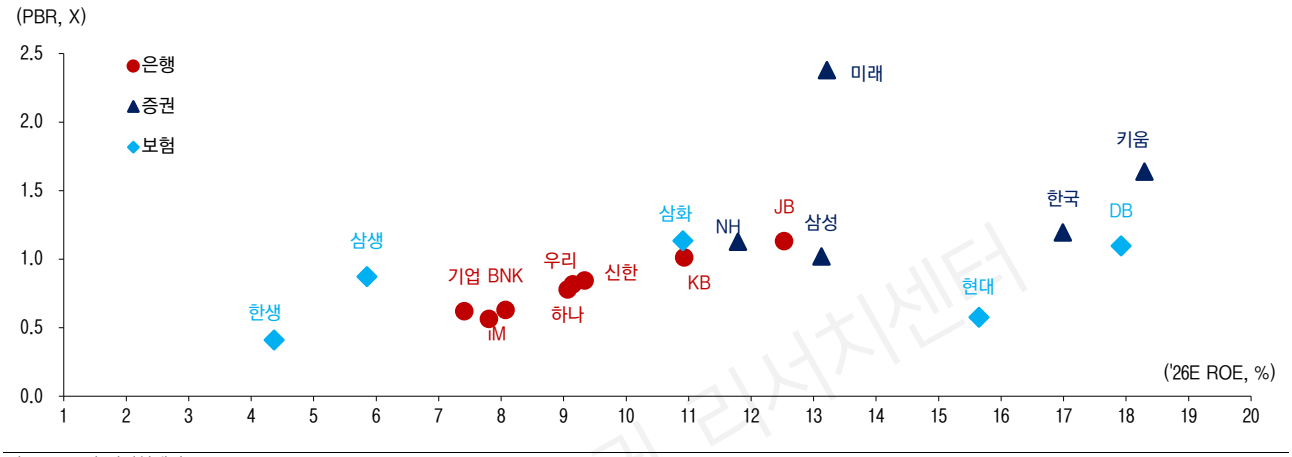
금융업종별 절대/상대 PER 비교분석

▶ 은행: 은행업종은 최근 KB금융이 PBR 1배에 도달하면서 전반적인 주가 키맞추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절대적인 PER 수준은 지방은행과 기업은행이 평균 7.4배로 시중은행 평균 8.7배에 비해 낮음. 다만 ROE 대비 PER 관점에서는 KB금융과 JB금융, iM금융의 상대매력도가 높다고 판단

▶ 증권: 업황호조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의 PBR이 2.4배까지 상승한 상태이고, 타 대형증권사의 PBR 또한 1배를 상회하면서 증권주 주가는 저평가 구간을 탈피해 프리미엄 영역으로 진입.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의 PER이 평균 8배 수준으로 아직 상대 밸류에이션 여력이 있어 보임. 키움증권 PER 역시 10배 수준으로 ROE 대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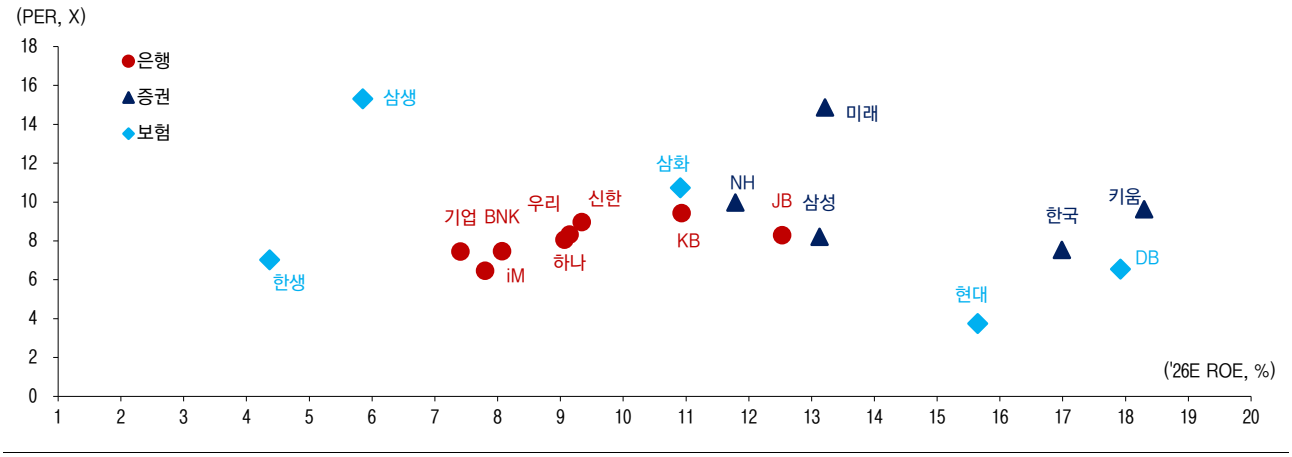
▶ 보험: 주요 보험사의 평균 PBR은 0.8배로 상대적으로 낮고 회사별 편차 또한 크게 나타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PER이 10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ROE 수준을 감안하면 현대해상과 DB손보의 PER이 각각 3.8배, 6.5배로 여전히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 현대해상의 경우 낮은 주주환원 여력이 극단적인 저 PER로 반영되고 있음

그림1 **금융주 ROE -PBR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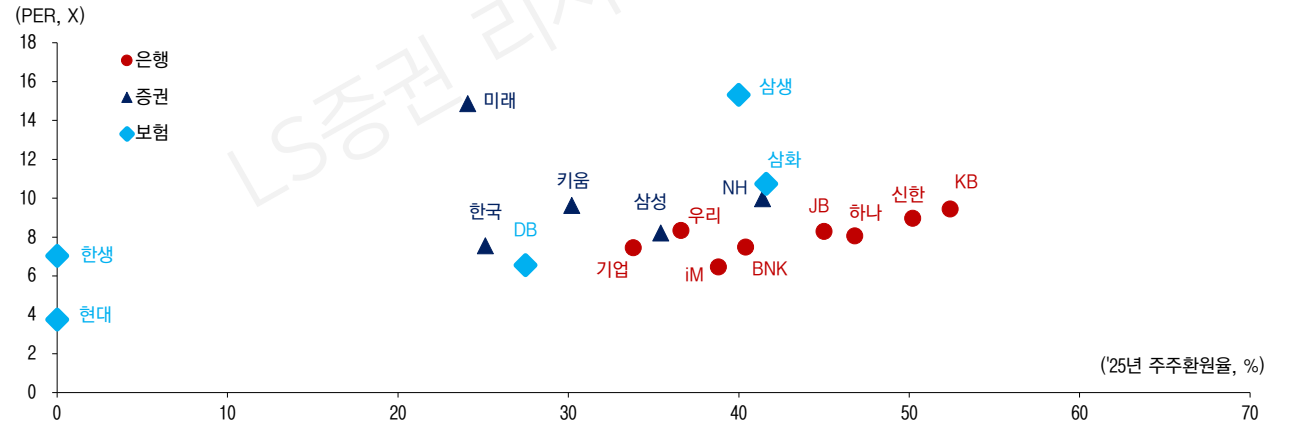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금융주 ROE -PER 비교**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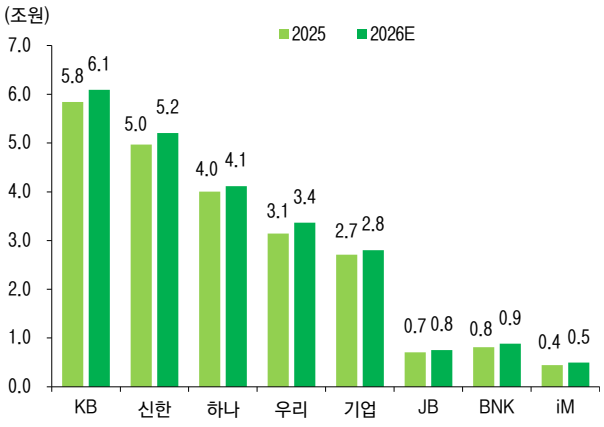
그림3 **금융주 주주환원율-PER 비교**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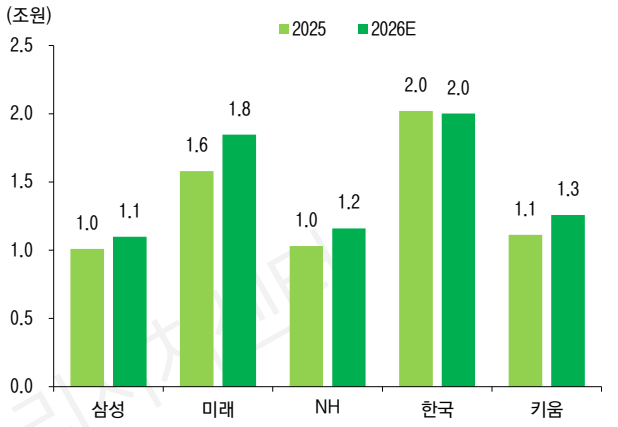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은행지주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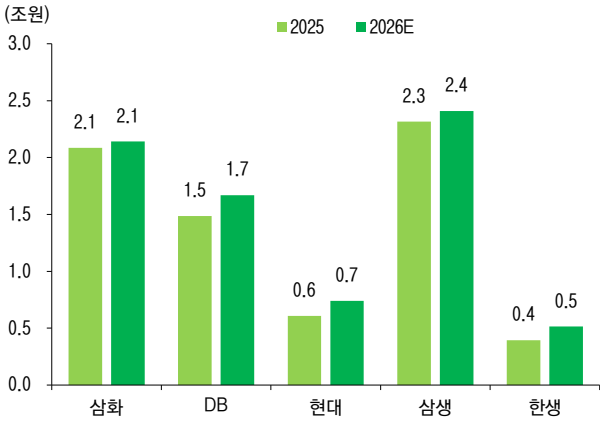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증권사별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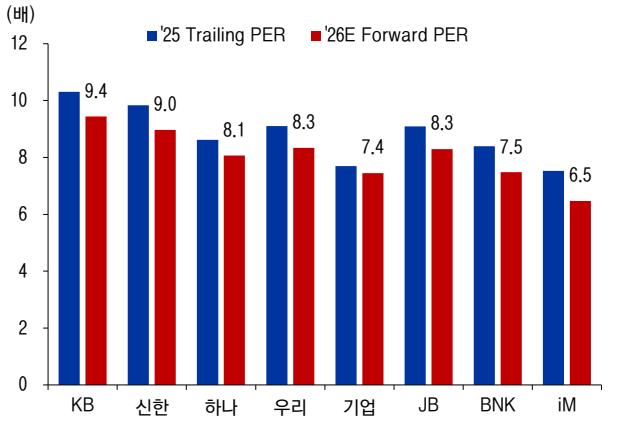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보험사 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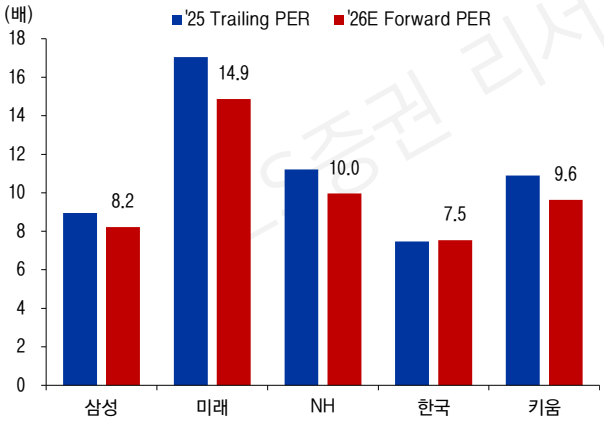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은행지주 PER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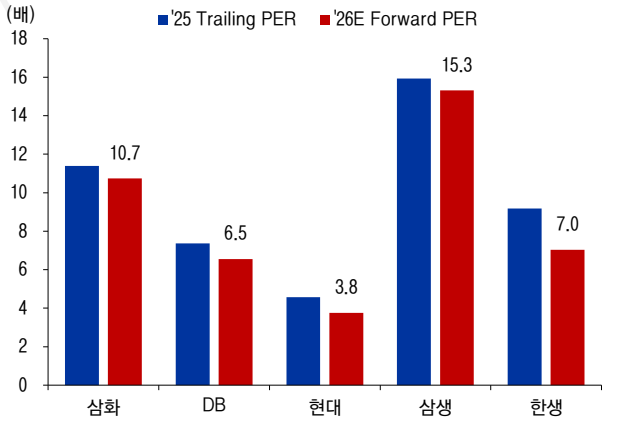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증권사 PER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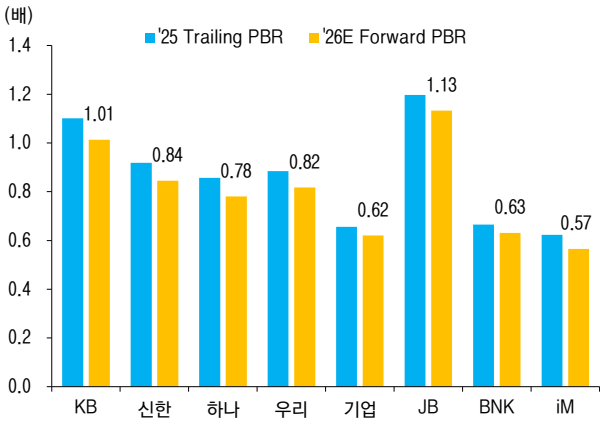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보험사 PER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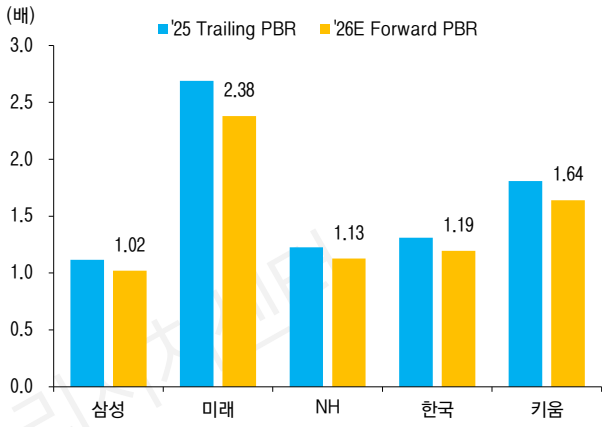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은행지주 PBR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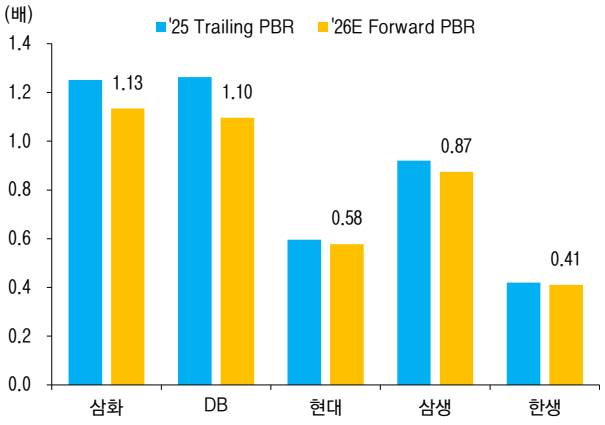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증권사 PBR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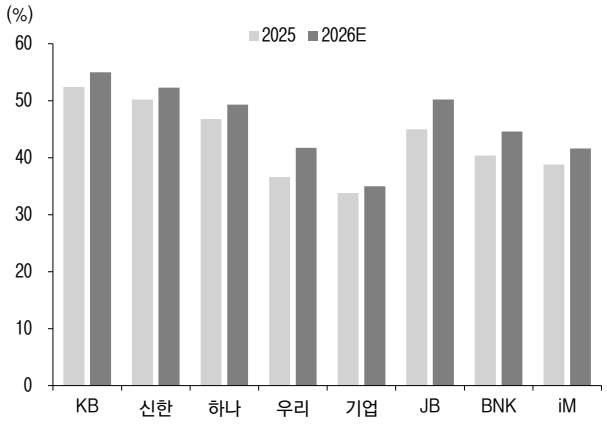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보험사 PBR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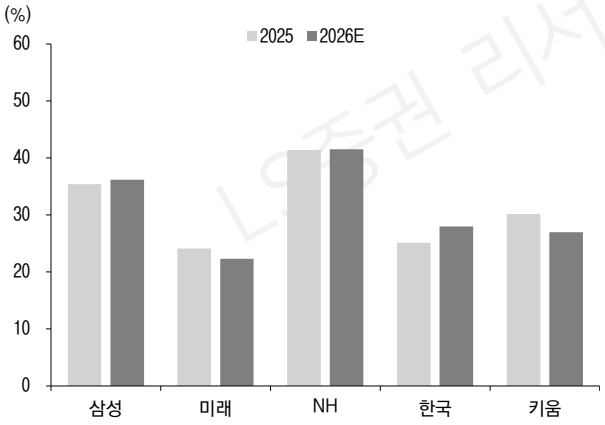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은행지주 주주환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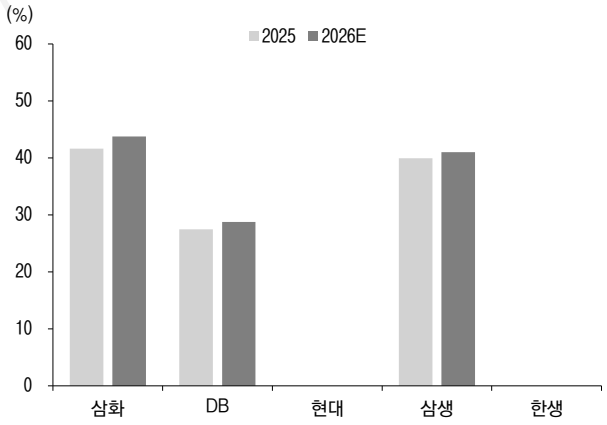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증권사 주주환원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보험사 주주환원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8.7% 11.3%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1. 01 ~ 202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